

5/21 지난 수업 리뷰

강의 주제: 지난 시간에 나와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지난 시간 공부 주제: “다양한 서술자의 특징을 알고 소설을 감상하면 뭐가 좋을까?”

질문1. ‘서술자’가 뭔가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사람
소설 속 이야기를 서술해주는 사람
소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소설의 내용을 말해주는 분
소설 속에서 소설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람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소설에서 설명하는 사람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 설명하는 사람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사람
소설 속 내용을 설명해주는 사람
소설에서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야기를 서술하는 사람
소설을 이야기 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풀어 주는 사람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
소설에서 말하는 이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말해주는 가상의 화자이다.

질문2-1. 위와 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잘 알 수 있다.

주인공 자신의 속마음 같은 걸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속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재미있다.

주인공의 마음을 더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시점을 알아서 더 재미있다

주인공의 감정을 더 잘 드러나게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속마음이 잘 드러난다.

주인공 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 주인공의 감정을 잘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 알 수 있어서 좋다.

주인공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주인공 한 명의 생각이나 속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딱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1인칭이어서 주인공의 감정이 잘 드러난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주인공 한 사람의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주인공에 관한 부분은 아주 자세하다.

(2)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인공이 직접 독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독자들이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는 것 같다.

독자인 우리가 주인공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다.

(3) 다른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은 알 수 없고 주인공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만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생각만 알 수 있다.

질문2-2. 위와 같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행동을 관찰자가 서술하는 것이다

두 주인공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주인공들을 바라볼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재미가 있다

주변 인물의 생각을 통해 주인공들이 한 행동과 말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의 주변 인물인 관찰자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 주인공들의 사건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시점의 매력인 것 같다.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가 읽어주는 소설 느낌이 난다.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입장이나 생각도 들어 볼 수 있다.

주변인물이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재밌고 새롭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보는 매력이 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주인공을 알 수 있다.

주인공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주인공들이 어떤 사건을 겪어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또 다른 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다.

(2) 독자인 우리도 주인공 주변의 관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니 독자인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 재밌다.

어차피 주인공의 생각은 잘 모르는 것이므로 독자인 우리의 생각도 넣어서 감상할 수 있다.

(3) 주인공의 생각이나 속마음이 궁금해지는 매력이 있다.

(4) 서술자 이외의 다른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없으며 행동으로 추측해야 한다.

질문2-3. 위와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소설 속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좋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말해준다.

이야기가 술술 풀려서 궁금한 걸 못 참는 사람에게 좋은 시점이다.

소설 속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매력이 있다.

전지적 작가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어서 이해하기 쉽다.

소설 속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작가의 시점이어서 인물들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2)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알 수 있다.

모든 등장인물들의 속마음과 그 행동을 모두 드러내 알려주는 것이 매력인 것 같다.

모든 이의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좋다

주인공이 여러 명이라도 모든 주인공들의 상황과 속마음을 모두 알 수 있다.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면서 보니 재미가 있다

소설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 수 있다.

등장인물의 관계들을 다 알 수 있다.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의 심리나 행동을 모두 알 수 있다.

(3) 더 쉽게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된다.

(4) 어느 한 등장인물의 시점이 아니므로 소설 속 인물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라 소설 속 작가이므로 인물들을 이름이나 인칭대명사로 부르는 3인칭 시점이기 때문이다.)

질문2-4. 위와 같이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매력인 것 같다.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상황을 이야기해준다

작가가 모든 인물의 행동을 관찰만 한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독자들도 인물들을 관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싸움을 보는 구경꾼 같다 그래서 재밌다.

(2)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3) 대사에 집중하여 볼 수 있다.

인물들의 말이나 표정, 행동에 더 집중하게 된다.

(4) 독자들은 주인공의 생각을 예상만 할 뿐 알진 못 한다.

(5) 상상하는 매력이 있다.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해주는 매력.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알 수 없어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거 같다.

모든 인물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독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등장인물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읽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직접 생각 하게 된다.

주인공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속마음을 추측하는 재미가 있다

보이는 그대로 말하니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을 추측하며 읽는 재미가 있다

주인공들이 무슨 생각이나 감정을 갖고 있는지 추측하며 보는 매력이 있다.

서술자가 인물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려주지 않아 상황을 이해하는 게 힘든 편이지만, 상상하고 이해하면 더 깊게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질문3. 서술자의 특징을 생각하며 소설을 감상하면 소설을 감상하는 데 어떤 점이 좋나요?

(1) 소설에는 서술자가 있어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소설에 몰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2) 소설에서 서술자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으면 서술자에 따라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 다양한 매력이 있어서 좋다.

각 시점에 맞는 서술자들의 이야기가 재밌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다양한 서술자의 입장에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다 다른 시점에는 각자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

(3) 서술자들이 무슨 시점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확 바뀔 때가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시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미있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달라짐에 따라 생각과 감정을 달라져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더 재미있어진다.

같은 소설이라도 서술자의 특징을 생각하며 소설을 감상하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도 상상을 해볼 수 있어 소설 속 사건에 더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로워진다.

(4) 그 서술자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 서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에 몰입하다 보면 서술자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줄지 조금은 예상이 된다.

(5) 더 이야기에 재밌게 빠져든다.

생생하게 소설을 읽을 수 있다.

상상하며 읽는 즐거움이 있다.

소설이 더 이해가 가서 빠져들 수도 있다,

소설을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이야기에 빠져드는 재미가 있다.

소설을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더 집중이 되고 그 상황에 직접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소설에 집중해서 보는 재미가 있다.

이야기에 더 몰입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재미있다.

질문4-1.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소설 감상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는 모든 글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는 글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소설은 지루한 게 아니다.

점점 소설에 흥미가 생겼다.

소설 감상을 안 좋아했는데 흥미가 생긴 것 같다.

전 : 소설은 재미가 없는 줄 알았다.

후 : 재미있다.

소설은 어려웠는데 이렇게 배우니까 예전 보다는 쉬워졌다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거 같다

공부하기 전: 서술자라는 거에 의식을 안 하고 읽기만 했다

공부한 후: 서술자를 의식하며 서술자에 따라 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다

공부하기 전: 소설은 재미가 없었다.

공부한 후: 나도 소설을 조금 봐야겠다.

소설을 그냥 재미있어서 읽었는데 이제는 소설 속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소설은 길어서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 하나하나의 생각과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아서 흥미가 생겼다

공부하기 전: 소설을 잘 읽고 생각하지 못했다/ 공부한 후: 소설을 읽고 다른 시점으로도 관찰할 수 있게 됐다.

소설은 재미없다고 생각 했는데 이제 재미있어졌다.

소설도 웹툰처럼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소설이 재미있다.

여러 인칭으로 보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을 읽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조금 쉬워진 거 같다.

전: 소설을 감상할 때 그냥 읽기만 했다.

후: 소설에 생각과 감정을 보며 읽으니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백꽃 같이 약간 시대 배경이 고전적인 소설들은 재미가 없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공부한 후 고전적인 소설도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상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게 어려웠는데 이번 단원을 통해서 내 생각을 더 쉽게 정리할수 있게되었다.

소설은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해시켜준다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어려워면서 재미있다.

소설을 많이 읽지 않고 드라마나 웹툰으로만 봤었는데 이제 소설에 흥미가 생긴것 같습니다

소설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항상 어려운 책이었는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가까워진 거 같다.

평소에 소설보다 그림 있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소설을 보는 것도 흥미가 생긴 것 같다.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소설이 0.1g정도 재밌어진 것 같다.
어렵다.

질문4-2. 이번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소설 감상 능력’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공부하기 전에는 글로 된 책을 읽을 땐 집중도 못하고 흥미도 못 느꼈는데 이번 기회로 조금은 흥미가 생긴거같다
더욱 흥미있게 다가옴
소설을 생생하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
전 : 서술자의 특징을 생각하며 소설을 읽을 수 없었다. 후 : 서술자의 특징을 생각하며 소설을 읽을 수 있게됐다.
소설의 흥미가 없었고 집중도 잘 못하는데 흥미도 좀 생기고 집중도 된다
내용을 쉽게 파악하는 법을 알았다
공부하기 전: 그냥 스토리만 신경쓰며 글만 읽었다
공부한 후: 스토리만이 아닌 서술자에도 신경을 쓰며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공부하기전:내가 집중을 잘 못해서 안읽었다
공부한 후:이제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다
좋아졌다
주인공들의 상황과 속마음들을 더 자세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하기 전: 소설이 그냥 상상만 됐다/ 공부한 후:소설을 읽고서 인물의 감정을 잘 느낄 수있었다.
글 읽기에 더 집중 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 되어있는 이야기가 재밌어졌다
여러 인칭으로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소설을 더 재밌게 상상할수있다
글 자체가 싫어 읽기를 싫어했다. / 글에 매력을 알게 되어 읽을 때 재미있게 읽을 것 같다
시대 배경이 고전적인 소설들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지만 공부를 한 후 고전적인 소설들도 조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하기 전에는 서술자를 왜 바꾸는걸까? 했는데 공부를 하고나니까 서술자를 왜 바꿔서 읽는지 알았다. 서술자를 바꾸어 읽으면 그 이야기에 더 빠져들수 있고 주인공들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다.
이야기가 긴 것은 생각보다 싫어했는데 이제 읽는것이 싫어지지 않았다
여러 시점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 배우니까 다른 소설도 다른 시점으로 보고 싶어진다.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읽는 걸 싫어했는데 좀 더 좋아졌다
어렵다고만 느낀 책이 재밌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 책으로 바뀐거 같다
그냥 글자 보이는데로 책을 읽었는데 서술자에대해 알아보니 이야기가 조금 더 재밌

고 신선했다

공부전:소설이 엄청 노잼이었다

공부후:소설이 만들어지는과정을 보고 나니 글이 재밌어지는 능력이 조금 생겼다(10g)

전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오늘 수업을 마치며 >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든 점 없었어요.